

U-20 전사들 행복한 뒷풀이

2

2019년 6월 18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제3105호

전방 손흥민·중원 이강인 황금 라인의 전제 조건들

- 1 이강인 발렌시아 1군서 연착륙
- 2 새 팀 이적때 대표팀 차출 차질
- 3 A대표팀서 적응기 필요할수도

요즘 축구팬들을 사로잡는 건 손흥민(27·토트넘)과 이강인(18·발렌시아)의 조합이다. 이들이 파울루 벤투 감독(50)의 국가대표팀에서 호흡을 맞출 수 있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사실 3월 평가전(볼리비아, 콜롬비아)을 앞두고 소집된 대표팀에서 이들 조합에 대한 얘기는 흘러 나왔다. 이강인이 역대 7번째로 어린 나이에 태극마크를 달자 팬들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벤투는 “(이강인은) 기술적 능력을 가진 선수”라고 칭찬했지만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선수”라며 기용하진 않았다. 손흥민은 “목목히 응원해준다면 알아서 큰 선수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이강인을 토닥였다.

3개월 사이 많은 게 변했다. 이강인의 위상이 확 달라졌다.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진가를 발휘하며 세계무대를 휘저었다. ‘막내 형’은 최우수선수상인 골든볼을 수상하며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촉망받는 유망주로 우뚝 섰다.

이제 다시 손흥민-이강인 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손흥민은 이미 국가대표팀 주장이자 에이스다. 그가 없는 벤투호는 상상하기 힘들다. 벤투도 그를 절대적으로 믿는다. 9월부터 시작될 2022년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부터 손흥민을 중심으로 대표팀이 꾸려진다.

관심은 이강인의 합류와 출전여부다. 중원의 이강인과 최전방의 손흥민의 조합은 9월엔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상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우선 이강인이 소속팀에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 올해 초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1군 등록 이후 좀처럼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다. 소속팀 주전 경쟁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벤투의 무릎을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9~2020시즌을 앞두고 자신의 거취도 결정해야 한다. 뭘 수 있는 팀을 찾는 게 급선무다. 네덜란드나 스페인 클럽에서 러브콜을 보낸다는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팀을 옮긴다면 벤투는 이강인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라도 차출하지 않을 수 있다.

대표팀에 선발된다하더라도 경기에 출전한다는 보장은 없다. U-20 월드컵과 성인무대는 차원이 다르다. 대표팀에는 경쟁한 선배들이 버티고 있다. 특히 이강인의 경우 불의의 흐름을 살리는 경기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래 선수들에게는 개인기가 통할지 몰라도 최강의 선수들이 모인 A대표팀에서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부족해 보이는 스피드와 급격히 떨어지는 체력 및 근력 보완도 필요하다. 종합해보면 조금 더 여물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물론 이강인의 번뜩이는 창의성과 무한한 잠재력은 이런 장애물을 넘기에 충분하다는 의견도 많다. 어떻게, 또 얼마나 성장할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아무튼 이강인의 태백 크로스와 손흥민의 골 결정력,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이 그림을 볼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았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서울광장 환영 행사 참석한 정정용호 | ‘골든볼’ 이강인, 입담도 ‘골든마우스’



최근 폴란드에서 막을 내린 FIFA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젊은 태극전사들이 17일 당당하게 개설했다. 이른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U-20 대표팀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환영행사를 끝으로 감동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정정용 감독이 축사를 하고 있다. 무수히 많은 선방으로 U-20 대표팀의 결승진출을 건인한 ‘차세대 수문장’ 이광연(오른쪽)이 광장 주변을 가득 채운 팬들과 사진을 찍으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선수들이 정정용 감독을 하늘 높이 들어올리고 있다. 결승전 패배로 하지 못했던 행가래가 선수들의 제안으로 환영행사에서 펼쳐졌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친누나 둘에게 소개하고픈 형은 누구냐”는 질문에 이강인 ‘뺑 터진 대답’

“전세진·엄원상 형…나머지 형들은 전부 비정상”

멋진 축구로 행복한 6월 선물한 이강인
막내형 별명처럼 형들의 귀여움 독차지

대한민국 축구의 ‘차세대 에이스’ 이강인(18·발렌시아)은 한국인 모두에게 큰 행복과 기쁨을 안겨줬다.

이강인이 속한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은 16일(한국시간) 폴란드 우치에서 막을 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동유럽 다크호스’ 우크라이나와 결승전에서 한국은 전반 5분 이강인의 페널티킥(PK) 골로 리드를 잡았으나 세 골을 내리 내주며 1-3으로 역전패했다.

한 걸음만 더 올랐다면, 한 번만 더 이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우리는 충분히 행복했다. 한국 남자축구가 FIFA 주관대회 결승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대부분의 국제대회마다 조별리그 3경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데 훨씬 익숙한 한국이지만 사상 최초로 7경기나 치르는 긴 여정을 이어갔다.

사력을 다한 어린 태극전사 전원이 주인공이지만 이강인은 단연 돋보인 주연이었다.

이강인은 대회 최고 스타로 남았다. 대회 최우수선수에게 주어지는 FIFA 골든볼을 수상했다. 18세 나이에 골든볼을 받은 건 2005년 네덜란드 대회에서의 리오넬 메시(LC바르셀로나) 이후 14년 만이다. 여민지가 2010년 U-17 여자월드컵 우승과 함께 골든



한국 20세 이하(U-20) 대표팀 이강인이 17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FIFA U-20 월드컵 골든볼 수상자인 그는 축구기량 못지않은 입담으로 많은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마지막까지 주변 챙긴 ‘진정한 리더 정정용’

“선수들이 있어 내가 있었다” 공 돌려
“나와 선수만 주목” 코치들 지켜세워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의 정정용 감독(50)은 폴란드에서 막을 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을 통해 인지도가 높아졌다. 대회 이전까지는 주목받는 지도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U-20 월드컵에서 한국 남자축구 역사상 첫 FIFA 주관대회 결승 진출이라는 새 역사를 쓰면서 단

숨에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감독으로 급부상했다.

그러면서 정 감독의 리더십에도 많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그는 선수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지도방식으로 어린 태극전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선수들이 잘할 때는 칭찬을, 선수들의 부진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댔었다. 결승전에서 경기력이 좋지 못했던 김정민(20·리퍼링)에게 일부 팬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비판과 비난은 내게 했으면 좋겠다. 어린 선수들이라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다. 지도자에게 건전한 비판을 해주길 바란다.”라며 감쌌다.

정 감독이 이끄는 U-20 대표팀은 17일 귀국해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 자신보다 주변을 챙기는 정 감독의 성향은 행사장에서도 두드러졌다. 선수단 대표로 마이크를 잡은 정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성적을 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성적을 냈다. 임금이 있어서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백성이 있어서 임금이 있는 것이다. 선수들이 있었기에 내가 있었다. 선수들에게 감사하다”고 제자들에게 공을 돌렸다. 이어 “나와 선수들만 주목을 받은 것 같다. 우리 코치들도 한마디 씩

했으면 좋겠다”며 함께 고생한 코치들을 치켜세웠다. 정 감독은 선수 한 명, 한 명이 단상에서 이야기 할 때마다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재미있는 대답을 한 선수들에게는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주장 황태현(20·안산 그리너스)은 마이크를 잡고 “감독님 행가래를 하고 싶었는데 결승전에서 져서 못했다 여기서 한 번 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금세 정 감독을 둘러싼 선수들은 힘차게 행가래했다. 서울광장 한 복판에서 수많은 팬들이 모인 가운데 공중으로 떠오른 정 감독의 얼굴에서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광장 메운 팬들, 선수들과 셀카 즐거운 비명

현장리포트

19일엔 U-20대표팀 청와대 초청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한국 U-20 축구대표팀이 시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17일 서울시청 앞 서울

광장에서 U-20 대표팀을 위한 환영 행사를 열었다. 서울광장은 한국 남자축구 역사상 첫 FIFA 주관 대회 결승 진출이라는 새 역사를 쓴 U-20 대표팀을 보기 위한 팬들로 북적였다. 서울광장에는 약 1000명의 시민들이 자리했다.

U-20 대표팀은 ‘PRIDE OF ASIA 2019’라는 문구가 새겨진 검정색 티셔츠를 맞춰 입고 단상에 올랐다. 어린 여성 팬들은 선수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환

호성을 질렀다. 특히 골든볼을 수상하며 이번 대회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은 이강인(18·발렌시아)이 소개될 때는 환호성이 더 높아졌다.

U-20 대표팀의 주장 황태현(20·안산 그리너스)은 “선수단 모두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 싸웠기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 늦은 시간에도 응원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끝까지 싸울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다.

행사에 참석한 정정용 감독은 “많은 국민들이 (U-20 대표팀에) 열광한 건 단지 성적 때문만이 아니라고 생각한

다. 스포츠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많은 가치를 보여준 멋진 경기였다”라며 “선수들이 2022년 카타르월드컵, 2026년 미국·캐나다·멕시코월드컵에서 주축을 이룰 것을 확신한다. 소속팀에서 기량을 닦아 대표팀에서 다시 만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U-20 대표팀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격려 만찬에는 U-20 월드컵 준우승 주역인 21명의 선수들과 정정용 감독, 공오균·인창수·김대환·오성환 코치 등 코칭스태프 모두 참석할 전망이다.

정지욱 기자